

살기 좋은 도시, 삿포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관광컨벤션부 관광기획과에 배정된 무함마드 칼리드 사키나라고 합니다.

도시는 항상 바쁘고 혼잡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부터 삿포르시 국제교류원으로서 삿포르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도시의 생활이 반드시 고층빌딩들과 좁은 길에 해매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시골에는 없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노면전차, 노선버스 등의 공공교통기관이 발달한 삿פור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교통기관의 안내표지에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병기되어있어 삿포르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삿פור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외국인과 외국인관광객의 환경을 항상 보다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연간 1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식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대응하는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삿포르에는 이전부터 신선한 해산물 요리, 징기스칸(양고기 요리), 미소(일본식 된장)라멘, 디저트 등의 다양한 식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채식주의자와 이슬람교인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가게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삿포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연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 집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산에서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혜택받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중심부에서 가까운 모이와 산의 야경은 올해 '일본 新 3대 야경'으로 뽑혔을

정도로 예쁩니다. 겨울에는 도심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데이네 산의 스키장에서 보는 경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내에는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모에레누마 공원입니다. 모에레누마 공원은 유명한 조각가인 이사무 노무치가 설계하였으며, 공원 자체가 예술이기도 합니다. 본래 쓰레기 처리장인 곳을 탈바꿈 시켰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삿포로의 매력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의 편리함과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삿포로는 매우 쾌적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방문해주세요.

<모이와 산>

<http://moiwa.sapporo-dc.co.jp/>

<모에레누마 공원>

<http://moerenumapark.jp/>

사키나 무함마드칼리드

싱가포르 출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일본연구학과 부전공.

2012년 여름, 홋카이도대학에서 단기유학 후, 그 해 가을부터 1년간 와세다대학의 국제교양학부에서 유학.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의 관서지방 사투리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 2014년 8월부터 관광컨벤션부 관광기획부에서 근무 중.



◆ 문의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TEL : 011-211-2032, FAX : 011-218-5168

E-mail:kokusai@city.sapporo.jp